

4·11 총선 돋보기

<11> 후보 로고송

노래로 표심잡기...‘무조건’ ‘간 때문이야’ 인기

4·11 총선 후보들의 ‘홍보 로고송’ 경쟁이 접입가경이다. 로고송은 유권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거리의 표심을 흔들어 놓는다. 19대 총선에서는 중독성이 강하고 누구나 쉽게 따라부를 수 있는 흥겨운 트로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또 20~30대 표심에 의해 판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빠른 템포의 음악도 인기다. 로고송에는 유권자의 나이와 성향 등을 고려해 개사되는 만큼, 각 후보들의 선거전략도 볼 수 있다.

◇노래로 유권자 공략=로고송은 선거운동 현장에서 분위기를 띄울 수 있고 3분가량의 반복되는 노래를 틀다보면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자연스럽게 인식시킬 수 있어 효과 크다.

무소속 박주선 후보는 윙크의 ‘야야 고집 찰’, ‘간 때문이야’ 등 2곡을 준비했다. 무소속 양형일 후보는 박상철의 ‘무조건’과 거북이의 ‘빙고’, 동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등

트로트 가장 선호... 젊은층 공략 빠른 템포도
곡당 300만원~500만원 ... 가수 따라 천차만별

을 활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후보는 장운정의 ‘어부바’를,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은 노라조의 ‘수퍼맨’을, 무소속 김재균 후보는 박현빈의 ‘샤방샤방’과 윙크의 ‘얼쑤’ 등을 준비해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무소속 조영택 의원은 ‘간 때문이야’와 ‘감사합니다’를,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는 슈퍼주니어의 ‘로꾸꺼’를 준비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운석 후보도 태진아의 ‘동반자’와 박상철의 ‘황진이’를 개사해 거리 유세에 나서고 있다.

◇메시지를 담아라=김재균 의원은 개사한 로고송을 통해 한번 더 지지해 달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젊은

층 표심 공략을 위해 젊은층의 투표 독려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노래를 개사했으며, 김동철·박주선·양형일 후보는 개사를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깨끗한 정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재연 후보는 장운정의 ‘어부바’ 등을 개사해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의 경제전문가임을 짐을 강조했다. 장병완 의원은 카라의 ‘미스터’, ‘이중범송’ 등 4곡의 노랫말을 바꿔 예산전문가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현 정권 심판에 비중을 둔 로고송도 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후보는 ‘간 때문이야’와 ‘고등어’를 개사해 한미 FTA 반대 등 현 정권 심판론을 담았다.

◇비용과 선호 곡은?=3일 각 후

보 측에 따르면 로고송은 원곡의 인기도와 가수의 지명도 등에 따라 사용료가 천차만별이다.

한 곡당 보통은 100만~300만원 수준이지만, 인기도,지명도에 따라 500만원 이상 한다는 게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비용에는 가수나 가수의 소속사, 작곡 및 작사가에게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료와 가수가 개작한 곡을 직접 불러주는 비용, 제작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후보마다 적게는 2~3곡, 많게는 5곡 이상 쓰는 만큼 로고송에만 수천만원이 쉽게 들어가는 셈이다.

4·11 총선에 출마한 광주·전남 지역 후보 83명이 100만원짜리 두 곡씩만 쓰더라도 1억66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후보들이 가장 선호하는 로고송은 누구나 쉽게 따라부를 수 있고 널리 알려진 ‘간 때문이야’, ‘무조건’, ‘샤방샤방’ 등이다.

/이종희기자 galee@kwangju.co.kr



한인들이 많이 재학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글랜드 시내 오이코스 신학대학에서 2일(현지시간)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 최소 7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교정에서 경찰이 희생자의 시신을 차에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계 미국인 美대학서 총격 7명 사망

경찰, 용의자 체포

한인들이 많이 재학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글랜드 시내 오이코스 신학대학 구내에서 40대 한국계 미국인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7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2일 (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3분께 대학 내 간호대학 강의실에 40대 아시아계 남성이 침입해 총기를 난사했다.

목격자들은 카키색 복장을 하고 회색 모자를 둘러싼 건장한 체격의 용의자가 45구경 콜리버 권총을 소지한 채 간호대학 강의실로 들어와 교실에

있던 한 학생의 가슴에 근접거리에서 총격을 가한 후 강의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총기를 난사한 뒤 도주했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특수기동대(SWAT) 등을 동원해 주변 도로를 차단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피시켰으며, 사건이 발생한 후 인근 알라메다의 한 소포점에서 한국계 미국인 용의자 고원일(43) 씨를 체포했다.

샌프란시스코 주재 한국총영사관 관계자는 “현지 경찰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라고 알려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동기 등을 조사하

고 있으며, 현지 시각으로 오후 6시 사건 전모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망자나 부상자 등 피해자 가운데 한국인이 포함돼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간호대는 영주권자 이상만 수강할 수 있어 일단 한국유학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한국계 미국인 목사 김모씨(가) 10년 전 설립한 사립대(private university)인 것으로 알려진 오이코스 대학은 신학, 음악, 간호학, 동양의학 등 학과가 개설돼 있으며, 특히 신학과 음악대학을 중심으로 한인 학생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수-진보 지지층 결집 뚜렷

재외국민 5만5천명 투표

투표율 45% 그쳐

19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50%에 못미치는 투표율로 마감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107개국 158개 공관별로 진행된 재외국민 투표가 대부분 마감된 가운데 이날 오전 7시 현재 12만3571명의 등록자 가운데 5만5397명이 투표에 참여, 44.83%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같은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18대 총선의 46.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투표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홍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합뉴스

선거운동 중반 부동층 절반수준 급감
‘불법사찰’ 최대 변수... SNS도 영향

초래할 수도 있어 꼭 어느 한쪽으로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진보진영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투표율이 50% 중반을 넘으면 야당에, 그 이하면 여당에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SNS도 변수 중 하나. 지난 10·26 재보선 등을 통해 이미 SNS의 투표를 제고 위력이 입증된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밖에 여론에 부정적인 20·30 세대의 투표 참여도와 북한의 로켓발사 예고에 따른 북한 변수 등도 막판 판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11 총선이 3일로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의 열띤 유세 지원과 각종 공방으로 선거운동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양측 지지층이 급속히 결집하는 양상이다.

때문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최대 40%에 달했던 부동층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자릿수대로 줄었다.

부동층이 줄긴 했지만 일부 접전지를 중심으로 여전히 20% 중후반대의 부동층이 형성돼 있어 결국, 이 남은 부동층의 선택이 막판 판세를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부동층뿐 아니라 기존 확고한 표심까지 흔들 최대의 변수는 정치권을 갈라놓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라는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정치권에선 불법사찰 논란이 아직 여론조사에 본격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과 청와대,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의 물고 물리는 공방전이 남은 기간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불법사찰 논란이 정권심판론 색채를 강화하면서 여당에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반대로 보수층 결집을 공고히 하는 결과를

“민간사찰 문건 두 군데 더 있다”

난민 신청 우즈베크인
정부, 강제송환 논란

이석현 의원 주장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민간인 사찰 문건이 두 군데에 대량으로 더 있다”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이기영 경감이 사찰보고서 문건 6박스를 갖고 있고,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차량에 사찰 보고서 문건이 수북하게 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이 경감이 친형의 집에 민간인사찰 문건 6박스를 은폐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최근

한 언론이 확보한 류철중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의 녹취록을 보면 ‘이 의원이 말하는 6박스 자료가 이 경감의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며 “제보 내용에 사실임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진 전 과장이 노트북을 숨기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검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한 이후에도 진 전 과장이 사찰보고서 문건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가득 갖고 다녔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이 이슈가 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사례가 여러 건이 예상된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3월21일 본국으로 송환되면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게 강제퇴거 조치를 집행했다.

강제송환된 이후 열흘이 넘었지만 A씨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현지에 있는 A씨의 어머니도 아들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빌딩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4억3천만원
월2200만원
-용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3억5천만원
월 650만
-영5억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광주시내 2중 주거지역 토지구합

-면적 500~1000평
상무지구 랜도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름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확임이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6532
(영주은행 신촌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효성공인중개사 공장·창고 전문

공 장 임 대 ★하남공단★

- ① 80평 : 전기 60kW ,호이스트5t
보증금 1,500만 / 월170만원
 - ② 250평 : 전기 300kW ,호이스트5t
보증금5,000만 / 월450만(분할가)
- ★ 평동공단 ★
- ① 120평 : 전기 100kW ,호이스트3t(신축)
대로코너. 보2,000만 / 월220만
- ★ 본촌공단 ★
- ① 100평 : 대로변코너. 신축
보3,000만 / 월230만
- ★ 물류창고 ★
- ① 293평 : 하남공단 보5천만/월450만
 - ② 100평 : 본촌공단 보2천/월220만(신축)

★ 공장매매 ★

- ① 본촌공단 : 대923/건500평 호이스트3t
매매가13억5천만(최근건물)
- ★ 물류창고 부지매매(금매) ★
- ① 양산동 25m대로변. 200,300평당 160만
 - ② 신안동 10m대로변. 280평 190만
- T. 062) 521-6024 H. 011-602-4207 F. 521-6026

전수열 공인중개사

양산동,연제동,본촌동,신용동,용진동 일대부동산전문
첨단2지구상가,단독물량다량확보

상가및근린시설

첨단2지구 빛고을대로 LG자이엠티코너 대지:900여평
첨단2지구 인근3000세대.용두인근3000세대상권
체인음식점.병원,교회등적합 평당:300만

양산택지지구토지매매

본촌동일률부지 300여평 평당:160만
연제동아파트정문앞도로변 상가지150평당:250만
본촌동아파트.중학교앞도로변:100평당:280만

단독주거지, 주택

양산동.양산초주변주택지37평:6500만(주택별)
양산동.양산동성당주변택지51평. 평당:110만

광주의곽인근

용진동 도로삼각코너변:1300평 평당:130만
용강동자연녹지 답:900평 평당:131만

시외매도물건

장성군 북이면 임야:13,500평 평당:1만
담양군 대전면 전원주거지역:약700평 평당:50만
신용동생산녹지지역:900평 평당:40만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950번지
T.062)572-8500 FAX:572-0732
휴대폰 011-629-8500, 010-3613-7397

최고의 가치투자를 원하십니까?



■주요취급업무 : 중상상업용지, 상가/주택
주치장용지, 혁신도시주변토지 등

사실분, 파실분 의 방문상담을 환영 합니다.

니주혁신도시투자전문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061)333-7077
보물창고 010-2609-5888, 010-3619-3651
전남나주시산포면 매성리354-321위치:산포면 전파관리소 부근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 〈건물구합〉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다구주택(임대, 투룸, 쓰리룸)
 - 〈토지구합〉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 ~300평. • 용도지역:자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창고로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상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점.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평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방빌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장대리업체(법원인가)
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상가

· 북구 용두동 근린상가 5층중 2층상가 46평
감정가 2억7천만 최저가 1억2천만

공장및근린주택

· 남구 백운동 4층근린주택 1층점포 2~4층다기구
대지95평 건평190평 감정가15억2천만 최저가13억6천만

· 동구 산수동 4층근린상가 대지79평 건평185평
감정가 4억4천만 최저가 3억5천만

단독주택

· 남구 백운동 상업지역내 2층주택 대지85평
건물73평 정가12억5천만 최저가1억7천만

전원주택부지

· 불산면 대추리 관리지역 대지622평
감정가 1억3천 최저가18천만

토지매매

· 화순군 도곡면 도곡면천향항 4차선도로변
관리지역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조정가)

· 광산구 대산동 관리지역 전방죽을 차량진입가능
한 백일홍식재(포함매매가) 매매 8천만

·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중도대교앞 생산관리
답7500평 매매 1억7천만(조정가)

광주 남구 월산동 구,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